



'긴꼬리투구새우'

## 전남 13곳서 서식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희귀생물인 '긴꼬리투구새우'가 전남 지역 친환경농지 토곳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도내 4개 지역에서 긴꼬리투구새우를 발견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는 도내 13개 지역에서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되고 있다.

을 들어 주요 서식지가 발견된 곳은 ▲강진군 강진읍·칠량면 ▲해남군 북면 ▲고창군 동강면 ▲장성군 북이면 ▲화순군 도곡면 ▲구례군 마산·간전면 ▲장흥군 관산읍 ▲곡성군 국성읍·석곡·옥과면 ▲완도군 청산면 등 13곳이다.

전남도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면서 나타난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긴꼬리투구새우는 5~7월 물이 깨끗한 농경지 등에서 서식하며 해충의 유충을 먹고 산다.

/최권일기자 cki@

## 함평천지 명품 한우

## 전문매장 12월 설립

함평군은 한우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은 '함평천지 한우' 전문 매장인 '함평천지 한우'가 오는 12월에 들어선다.

함평군은 지난 14일 함평읍 익스포공원 인근 현장에서 이석형 군수와 조용무 군의회 의장, 축산농가와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천지 한우' 기공식을 가졌다.

군은 한우산업 특구 지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하게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한우 브랜드로 자리 잡은 함평천지 한우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하고 한우산업 5개년 계획 추진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 한우축협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건립하는 한우축협은 오는 12월 개장을 목표로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상 3층에 전체면적 2천832㎡ 규모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 '목장형 농제품' 개발 활로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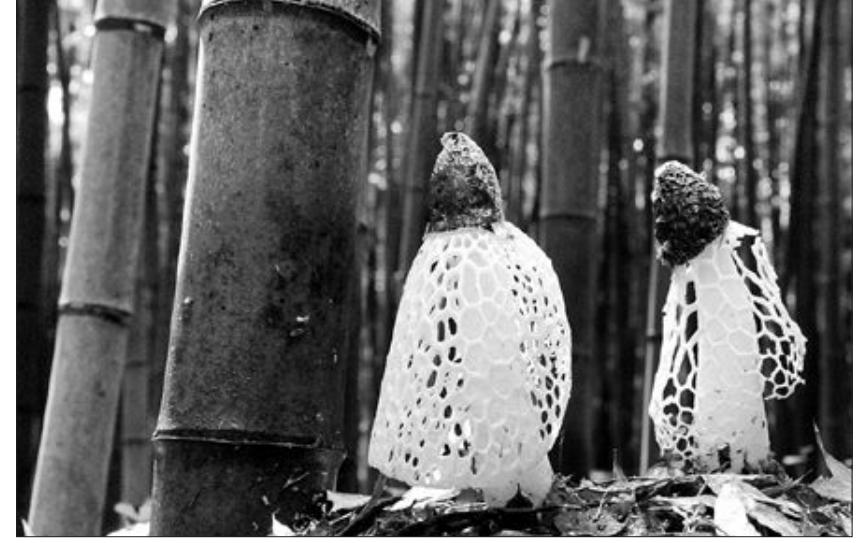
## 전남 농기원, 치즈·요구르트 생산 기술교육

한·EU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우유소비 감소, 사료값 상승 등으로 낙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 낙농가들이 '목장형 유(乳)'가 공'사업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3일 기술원내 유가공교육장에서 전남목장형 유가공연구회(회장 김수영) 회원 45명을 대상으로 유가공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충남 천안 연암대 박승용 교수를 초청해 우유가공 이론교육을 비롯해 '신선치즈'로 불리는 '코티지(cottage) 치즈' 만들기를 실습했다.

기술원은 매월 한차례씩 10~20회에 걸쳐 다양한 치즈제조법을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 자태 뿐내는 망태버섯

최근 장맛버섯이 연일 내리는 가운데 15일 담양군 대나무밭에 하얀 망사를 드리운 망태버섯이 고운 자태를 드러냈다. 대나무밭에서만 자생하는 망태버섯은 화려한 모습에 맛도 좋아 최고급 요리에 사용된다.

〈담양군 제공〉

## "완도 소안高 기숙사 꼭 지어주세요"

## 건물 노후화 신축 절실

완도 소안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완도 소안고는 지난 2001년에 세워진 단층 슬라브 건물의 기숙사가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데다 비가 셀 정도로 노후화되고 무허가 건물여서 개·보수 등도 어려움이 많다.

현 소안고 기숙사는 부지 595㎡(180평), 건물 195㎡(59평) 규모로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섬지역 33명의 남녀 학생들

이 생활하고 있다. 학교 측과 학부형들은 40여 명의 학생이 생활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현대식 기숙사가 신축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철식 교장은 "배움 여건이 너무나 열악한 학생들에게 현대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983년 문을 연 완도 소안고는 현재 남학생 27명, 여학생 21명 등 총 48명이 재학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지난해 8월 만들어진 전남목장형 유가공연구회는 전남 각지에 낙농업을 하는 50 농가가 회원으로 참여해 원유이용도 높여 소득을 향상하고 소비자를 위한 맞춤식 유제품 제조기술을 익히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유가공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가공 교육을 실시해 도시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체험목장' 사업에 지난해 무안 '파도목장'에 이어 올해 영광 '유레카 목장'이 선정돼 가족단위 체험객이 치즈를 직접 만들고 젖을 짤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해졌다.

최우 위주의 1차 낙농에서 벗어나 2차 유제품 가공, 3차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유가공 체험목장 운영으로 낙농에 직면한

낙농업의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김수영(45) 전남목장형 유가공연구회장은 "단순 우유생산에서 탈피해 자신의 목장에서 생산한 신선한 우유로 치즈 등을 직접 만드는 '목장형 유제품'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찬수 전남도 농업기술원 지방농촌지도사는 "복분자와 오디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다양한 유제품을 개발한다면 낙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낙농가에서 고품질의 유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교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6월말 현재 433농가에서 쟁초 3만1천138두를 사육, 전국대비 6.6%인 연간 13만5천t(하루 370t)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 ■ 현장과 시각 ■

## 무분별한 보조금 사업



최승렬

사회2부 차장·나주 주재

나주시 보조금 집행이 꾸밀 대로 꾸이고 있다. 이번에는 5억원을 지원한 '한우촌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보조금을 지원할 특정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끊다. 농업정책보조금 등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지자체도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선형조건이 따른다. 일종의 매칭펀드(matching fund)다.

한우촌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정훈 시장의 측근 개입설이 나돌았다. 측근 개입설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에서 불거졌다. 그나마 나주시민들의 견해다.

문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축산물 전문으로 취급하는 축협까지 사업 대상자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점이다. 상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이르는 과정을 원히 펴고 있는 축협이 배제됐다는 것은 아리더니 가깝다.

나주시의 변명도 결자이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일부 인사들에게 정보를 흘려놓은 뒤 읍·면·동에 사업신청을 받는다는 행정절차를 밟았다. 삼척동자가 봄도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면피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선정위원회의 해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선정위원회는 이미 짜여진 각본에 맞춰 선정 위치와 대상자를 낙점한 뒤 농정발전위원회 등 심의라는 요식행위를 가졌다. 말하고 있다.

한우촌 사업뿐만 아니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따라 추진된 대부분의 사업에서 나주시는 비위 의혹을 버커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광주고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직무 정지중인 신정훈 시장은 이번에 이번에 한우촌 건립사업의 진행과 유사한 경우다. 신정훈 자격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화훼단지 조성사업자로 사전 낙점해 사업을 진행, 급기야 불행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 나주시의 정책주진은 민선 1기 시장이었던 나모씨가 사법당국에 입건된 데 이어 현 시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파문이 확산되는 추세다. 나전시장이 추진했던 토비비공장 지원사업이 신정훈 시장으로부터 이어지면서 아래저래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3명이 사법기관에 입건돼 벌금형을 받은 금천면의 RPP 광장 조성사업, 삼포면 육가공장 육성사업 등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우촌 조성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6개월 만에 3분의 1로 매출이 급감한 현실에서 나주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고려한 나주시가 또다시 광고비 등으로 7천 6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깨진 돛에 물불기'이라는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체계적이면서 투명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아쉽다.

/srchoi@kwanju.co.kr

## 강진군 무원칙 인사 '물의'

## 강진읍장 명퇴 신청 반발

강진군이 최근 실시한 강진읍장 승진·전보인사에 대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1일자 인

사에서 6급 안전관리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면서 강진읍장으로 발령하고 5급인 A 강진읍장을 안전관리팀장으로 전보시켰다.

이에 강진읍장은 "안전관리팀장으로 갈 아무런 이유 없이 2시간 전에 군수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다"며 사실상 '강

등 인사'로 받아들이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안전관리팀은 이전 안전관리과에서 팀으로 조직이 변경된 후 A 읍장이 팀장을 연임했을 뿐 줄곧 6급이 팀장으로 임명된 자리였다.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사기 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는 그 만두고 읍·면·간사교류와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해 직렬을 초월한 순환보직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남찰희기자 choul@

## ■ 세 얼굴

## "기본·원칙 충실 주민 생명·재산 보호"

## 김 칠 성 해남경찰서장



"직원간 학파와 단결을 바탕으로 지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해남 경찰이 되겠습니다"

지난 14일 취임한 김칠성(56) 해남경찰서장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나주 출신인 김서장은 전남대 행

정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지난 76년 경찰에 입문, 합평경찰서장, 전남경찰청 경비교통과 차장으로 전보되었던 김서장은 2011년 6월 경찰서장으로 임명된 자리였다.

강진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공직자가 수긍하지 못하는 낙하산 인사는 그 만두고 읍·면·간사교류와 신규채용 직원의 경우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파악해 직렬을 초월한 순환보직 인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진=남찰희기자 choul@

〈김칠성 기자 dia@

〈김칠성 기자 dia@